

# 광화문에 홍보숍... 경북도, 서울시와 관광·문화교류 강화

1호 안테나숍에 경북 콘텐츠 구성  
경북 농촌 교육 체험마을과 연계  
오세훈 시장, 고향사랑 기부금 전달



이철우 경북도지사.

경상북도가 관광·문화 교류 강화 등 4개 분야 업무 협력을 위해 서울시와 손을 잡는다. 경북도는 지난 18일 상주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경상북도 교류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업무협약에 상호 서명·교환 후 오 시장이 상주 고향사랑 기부금을 전달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광·문화교류 강화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 강화 ▲경상북도 특산물 판매지원 홍보 ▲청년 교류 강화 등이 있다.

서울시는 경상북도와 함께 광화문 역사 내에 경상북도 관광자원 홍보를 위한 제1호 안테나숍을 조성한다. 안테나숍은 경상북도의 대표축제, 이벤트와 연계한 콘텐츠로 구성되며, 지역

의 관광정보 제공, 특산물 등을 안내해 경상북도의 매력을 알리게 된다. 서울 방문 관광객을 자연스럽게 경상북도 관광으로 유도해 서울-지방간 상생관광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서울시는 서울시-경상북도 청년 간 교류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농업분야 창업을 희망하는 서울 청년을 경상북도 농촌 교육 체험마을과 연계해 교육

육을 시행한다. 경북 청년의 역량강화를 위해 서울시 청년취업사관학교와 연계해 경북 청년에게 4차 산업 온라인 강의를 제공해 양질의 콘텐츠를 공급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경상북도 특산물 판매촉진을 지원한다.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 위치한 지역특산물 상설매장인 '상생상회'를 통해 경상북도 농

특산물 특별전을 개최하고, 서울시 보유 매체를 활용해 경상북도 우수농특산물 온라인 장터 '사이소'를 홍보하는 등 도농상생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명절을 앞두고 자신의 의의가 있는 상주에서 첫 고향사랑 기부금을 전달했다. 경북은 최근 전남과 고향사랑기부금을 상호 기부하는 등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에 적극 참여하고 있어, 향후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홍보에 탄력을 받을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16일 시장·군수 연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위한 8대 과제를 발표하고 시군의 동참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도와 시군이 함께 이루어낸 10조 9514억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국비확보와 규제자유특구의 투자 유치 성과 등을 강조하며 "경북의 자신감으로 지방시대를 확실히 열어가자"고 강조했다.

/경북=오대송 기자 ods08222@metroseoul.co.kr

## 지역 이모저모

### 신안군 하의·신의·장산면 쾌속선 운항

전남 신안군은 하의·신의·장산면 섬지역에 쾌속선 퍼스트엔젤호가 운항에 들어갔다. 쾌속선 퍼스트엔젤호는 200명이 승선할 수 있는 170t 규모로 최대속력은 26노트이다.

목포에서 장산 북강을 경유해 하의 옹곡과 신의 상태서리까지 70여분이 소요되며, 이후 도초 우이도선착장의 접안시설이 완료되면 우이도까지 기항할 예정이다.

신안군은 하의권역을 운항하던 조양운수(주)엔젤호가 지난해 6월 30일 운항을 중단한 이후 대체 운항할 면허신청자가 없어 부득이 민간이전 보조사업으로 해상여객운송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공모해 (유)신진해운을 사업자로 확정했다. /신안(전남)=안행주 기자 abcd@

### 완도군 설 명절 기간 제한 급수 해제

완도군은 다가오는 설에는 주민들과 귀성객들이 불편함 없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제한 급수를 해제하기로 했다.

현재 군에서는 수량 부족 수원지 6개소에 철부선 4대와 급수차 30대를 투입하여 일 2,000톤의 비상 용수를 운반하여 물을 보충하고 있다.

완도군의 2022년도 강수량은 765mm로 평년(1,425mm) 대비 53% 정도로 기상 관측 이래 최악의 가뭄을 겪으면서 비상 급수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완도(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 거제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

경남 거제시는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을 위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교체)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저녹스 보일러란 시간당 증발량이 0.1톤 미만인 보일러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이며, 도시가스를 연료로 하는 보일러로 도시가스 보급지역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거제(경남)=이도식 기자

### 창원대 의과대 설립 공동포럼

창원대학교가 지역사회 숙원사업인 의과대학 설립에 박차를 가한다.

국립창원대는 국립공주대, 국립목포대, 국립순천대, 국립안동대 등 5개 국립대학교 공동주관으로 1월 19일 청주시 H호텔 세종 시티에서 '지역공익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권역별 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공동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을 통해 공동주관으로 참여한 5개 대학들은 의대 유치를 위한 협력을 도모하고, 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필요성 및 공익의료 서비스 확대의 촉구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해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창원(경남)=이도식 기자



이백희 포항제철소장이 설 명절을 앞두고 해동동 큰동해시장을 찾아 건어물을 구매하고 있다.

## 포항제철소, '지역사랑' 앞장

### 4개 전통시장서 장보기 행사 진행 협력사 임직원 등 700여 명 참여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설 명절을 앞두고 인근 전통시장을 찾았다. 지난 17일 이백희 제철소장을 비롯한 포항제철소 임직원과 19개 협력사 직원 등 700여 명은 큰동해시장, 송림시장, 남부시장, 약전동해시장 등 인근 4개 전통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윤은하 해도동장, 이상협 해도동 개발자문위원장, 김병석 큰동해시장상인회장이 장보기에 동참해 의미를 더했다.

포항제철소는 2008년부터 매 명절

마다 장보기 행사로 사랑나눔을 실천해오고 있다. 직원들은 저마다 시장 인근에 위치한 시장에서 점심을 해결하고, 점심시간을 이용해 각 시장에서 명절 제수용품, 과일, 건어물 등을 구매했다. 모처럼 활기를 찾은 시장 상인들은 연신 미소를 지으며 직원들을 환영했다.

이백희 포항제철소장은 "지역 상인 여러분들이 따뜻해진 날씨만큼이나 풍성한 설 명절 보내시길 바라며, 포항제철소는 포항시 경제와 지역 상권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포항(경북)=김상복 기자 ksb8100@

## 울산 남구, 골목상권·상점가 활성화 추진

### 지역경제 활성화 계기 마련

울산 남구는 서민 경제의 근간이 되는 골목상권 및 골목형상점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고, 소상공인의 회복과 재도약을 위해 '2023년 골목상권·상점가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다.

남구는 2021년 '울산 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시작으로, '울산광역시

남구 골목상권 분석 및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통해 상권을 분석하고,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본방향을 수립했으며, 지난해에는 '추억의 여행길 공업탑 1967'과 '벚꽃의 향 전통의 맛 삼호곰장' 특화거리 조성과 함께 골목형상점가도 4개소로 확대 지정하는 등 골목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했다.

/울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 무안군, 디지털 농업 확산에 13억 투입

### 4개 분야 9개 사업

전남 무안군이 디지털 농업 확산, 기후변화 대응, 재배기술 연구개발 등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하고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농업지도 시범 및 연구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군에 따르면 과학영농 관련 시범 및 연구 사업은 디지털영농 시범사업 3개(사업비: 4억7000만원),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작물 육성 시범사업 1개(3억원), 과학영농 분석 및 배양시설 4개(5억4000만원), 재배기술 실증 연구사업 1개(200만원) 등 4개 분야 9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13억원이 투입된다.

과학영농기반 확대는 농촌지도 사업을 지원하고 디지털 영농기술 고도화를 통한 농업인 생산비 절감, 기후변화에 대응한 아열대작목 도

입으로 생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또한 과학영농 분석 및 배양시설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을 지향하고 화학비료 등 생산자제거 투입을 통한 경영비를 절감하고 신소득 아열대작목의 우리군 환경적응성 및 재배 신기술 실증연구 결과를 농업인 교육과 연계하여 무안군 농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민선8기 과학영농 분야 공약인 스마트팜 영농단지 구축기반 조성과 기후변화 아열대작목 육성 지원 예산은 지난해 대비 3.6배 증가한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대상을 0.3ha 이상 희망 농업인으로 추진하여 스마트팜 및 아열대작목 단지조성을 집중 지원키로 했다.

/무안(전남)=양수복 기자 ysn6313@

## 여수시, 2026년까지 일자리 5만개 창출

### 민선8기 일자리 종합계획 발표

여수시는 '일자리 가득, 남해안 행복도시 미항여수'를 비전으로 한 '민선8기 여수시 일자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오는 2026년까지 고용률 70%, 일자리 5만 개 창출 달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소통과 화합을 통한 일자리행정 혁신 미래산업 육성과 주도적 기술인재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함께하는 일자리 균형 성장 시민중심의 일자리 복지도시 구현의 4대 핵심 전략을 선정하고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여수시의 강점인 여수산단, 수소산

업, 해양관광레저산업 등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며 정부 일자리 추진방향인 민간 주도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산단 스마트화, 기업 투자유치 등 민간 일자리 창출로 자생적 일자리 환경을 구축한다.

아울러 청년 여성 노인 등 대상·계층별 일자리 사업 특화 전략을 강화하고 사회적경제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유관기관, 일자리협의회, 수행기관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지역고용 거버넌스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여수(전남)=김용복 기자 jijacecom@